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축제부문 수상 쾌거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축제부문)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은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통령속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6월 사전기초조사를 통해 후보상품을 선정하고 7~8월에 소비자 분조사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고의 상품을 선정, 발표하는 상이다.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Red Color 농축산물을 테마로 자연을 벗 삼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문화체험 축제로 올해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를 슬로건으로 전라북도 축제를 넘어 전국 우수 농특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장수한우랑마당은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한우를 구매하려는 도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 이번 축제기간 한우 300두가 도축돼 1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사과와 기타 농산물 등 축제기간 중 판매액이 20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총 36억원이라는 판매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홍봉길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기간 장수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장수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도시민들로 성황을 이뤘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메인 축제장과 장수사과시범포, 수확체험장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최고의 명품 농특산물과 한국적인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농특산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려나가고 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농특산물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가 군청 후정에서 마련된 직거래장터에서 장보기를 하고 있다.

'올 추석엔 반딧불 농특산물로'

무주군, 직거래장터 운영

무주군은 13일까지 군청 후정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이번 장터에서는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의 과일과 산양삼, 인삼, 더덕, 도라지 등의 약초류, 친환경 쌀과 잡곡 등의 곡류, 참기름, 고추, 마늘 등 양념, 천마와 홍삼 등의 가공품, 그리고 머무와인과 꽃감, 유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농업마케팅 강령관 담당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품목들로 골고루 준비를 했다"며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나와 믿을 수 있고 품질도 좋고, 가격까지 좋은 반딧불 농·특산

물을 직접 만나보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부산, 대전과 부천 등 여러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직거래장터도 성업 중이다.

군에 따르면 9월 5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과 서울 중구청, 양천구청, 부산 기장구청, 센텀포레아파트, 정관읍, 경기도 군포아파트, 부천시청, 대전 서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부천시청과 대전서구청에서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민들은 "마트 물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도 품질도 정말 좋다"며 "무주가 자매도시라는 믿음도 있고 또 직접 농사를 지은 분들이 판매까지 하시니까 더 신뢰가 간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열흘 앞으로 '성큼'

농산물 판매 코너 확대 60여 농가·법인 참여

'야생의 즐거움! 로컬푸드의 건강함'으로 가득한 제6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2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 선정 및 4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와일드푸드축제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신선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올해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재미'에서 '건강한 먹거리 로컬푸드'로 이어지는 산업형 관광축제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동안 다져온 로컬푸드를 축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로컬푸드 1번지 건강한 먹거리 축제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농산물 판매 코

너가 대폭 확대된다.

읍면별로 운영되던 농산물 판매부스는 '얼굴있는 먹거리, 로컬푸드'라는 취지에 맞게 개별농가 단위 부스운영으로 바뀌어, 60여 생산농가, 단체, 법인이 참여하여 직접 축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

특히 가장 인기를 모았던 시장천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화 된다.

화덕에서 매캐한 불 맛을 보고 싶지 않은 '물고기 구이' 체험객들을 위해 고산 참포마을에서 50여마리를 구울 수 있는 '통구이'와 매콤한 매운탕을 원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즉석 매운탕 코너'가 신설됐으며, 맨손물고기잡이는 물론 13개 읍면대학 와일드수종 출타리기, 어병으로 물고기 잡기,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볼 물놀이터 등 축제장을 가로지르는 시장천 수변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와일드푸드축제가 추구하는 건

강한 먹거리를 어머니 셰프들의 솜씨로 만나 볼 수 있다.

올해 새롭게 개발된 삼채남작만두볶음, 고구마감자밥, 생강도너츠, 포고볼, 더덕떡갈비, 과일젤라또 등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퓨전 건강음식으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셔틀버스 확대, 마을음식 안내소 운영, 셔틀버스 축제 해설사 배치 등 관광객 편의가 확대된다.

산봉준 복지행정국장은 "여섯번째 열리는 이번 와일드푸드 축제는 건강을 원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즉석 매운탕 코너'가 신설됐으며, 맨손물고기잡이는 물론 13개 읍면대학 와일드수종 출타리기, 어병으로 물고기 잡기,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볼 물놀이터 등 축제장을 가로지르는 시장천 수변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와일드푸드축제가 추구하는 건

"추석, 이웃과 마음을 나눴어요"

무주 반딧불기관장회, 관내 복지시설 찾아 위문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반딧불기관장회 회원 20여 명은 12일 무주종합복지관과 평화요양원, 하은의 집 등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방문은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시설을 찾은 반딧불기관장회 회원들은 사과(5kg) 15박스를 전달하고 이용시설을 둘러보며 생활상 불편한 점 등을 살폈다. 또한 경찰서 의경들과 군부대 부대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황정수 군수는 "명절이라 시설에 오래 계시어야 하는 어르신들이나 군복무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볼 수 없는 장

병들의 외로움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한다"며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변을 살피며 어렵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들이 확대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도 앞당겨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딧불기관장회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해마다 명절이면 소외계층들을 찾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성황리 마쳐

송기수씨 '격비' 소 최고 싸움소로 등극



제11회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서 송기수(전북 완주)의 '격비' 소 전국 최고의 싸움소로 등극했다. 전국 싸움소의 왕중왕을 가리는 제11회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화산생태체육공원에서 3만여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국민속소싸움협회 완주군지회(회장 김용범)가 주관하고 완주군, 전국민속소싸움협회, 축산단체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유명한 싸움소 131두가 출전해 체급별로 백두·한강·태백급으로 나눠 추첨 대진표에 의한 승자 결정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결과 송기수(전북 완주)의 '격비' 소가 백두급에서 우승했으며, 김용범(전북 완주)의 '이방지' 소가 한강급에서, 박기환(전북 청도)의 '원투' 소가 태백급에서 우승을 해 관중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백두급(771kg이상)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완주(완주군 김영만)소가 4강진입전에서 동급 우승후보인 대원과 10분이 넘는 혈투 끝에 패해 완주 대회 최대 이변으로 꼽혔으며, 특히 태백급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들로 꼽히는 성년황소(대구 강재근)는 대들보(청도 박기환)에게 1차 예선전에서 패해 축제시작일인 8일 집으로 발길을 돌려 관중의 환호와 아쉬운 탄성을 자아냈다.

이반 대회에는 전국에서 기량이 우수한 싸움소들이 대거 출전하여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을 펼쳐 대회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기간 중 매일 추첨을 통해 송자지 2두와 김지병장고, TV, 세탁기, 한우사골세트, 자전거 등 푸짐한 농축산물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한편 한우협회 완주지부의 한우 시식회와 양돈협회의 돼지고기 시식회가 열렸으며, 화산농협은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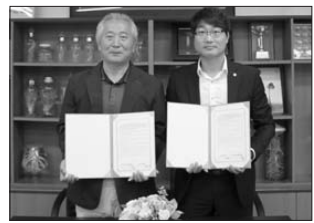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 자봉센터-전북 인삼농협,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

'어르신 생신 상 차려드리기'

최근 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용진)와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사회공헌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인삼농협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석맞이 시설 어르신 생신 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통하여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여러

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조합장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MOU협약식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전북인삼농협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문화체육장 김종연 · 산업공익장 이성철 · 애향장 권승근

장수군민의 장 본심사위원회는 제49회 장수군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9월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갖고 문화체육장에 김종연 씨, 산업공익장에 이성철 씨, 애향장에 권승근 씨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화체육장 김종연(54, 전북 전주시) 씨는 장수를 노곡리 출신으로 2011년에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 목침 기능장승자(2005-2호)로서 대한민국 명장 518호로 선정됐으며 현재 전주 한옥마을 '복우헌'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전 어진 박물관 현판과 문화체육관광부 현판 제작 등 다양한 목공예 작품활동과 작품전시회 등을 통해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가치 및 우수성을 널리 알려 장수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했다.

산업공익장 이성철(52, 전북 장수군) 씨는 반암면 출신으로 1997년 성안농장을 설립 후 2010년 장수군 양돈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양돈발전에 발판을 마련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0회에 걸쳐 40kg 938포 분량의 백미와 연탄, 돼지고기 등

을 경로당과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 2014년 도에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천만 원을 장수군 애향진흥 교육재단에 장려금으로 기부하는 등 지역 양돈산업발전 및 이웃사랑 실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을 인정고 있다.

애향장 권승근(77, 전북 산서면) 씨는 산서면 오산리 출신으로 33여년의 교직생활을 거쳐 2002년부터 산서면 육영당 훈장을 역임하면서 종교교실운영과 '장수문화' 발간에 동참해 장수군의 향토문화 연구·보존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 왔고 2012년부터 노인대학장을 역임하면서 매주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등 장수군 노인대학 활성화와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장수군은 오는 10월 3일 제49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장수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문화체육장 김종연, 산업공익장 이성철, 애향장 권승근

진안군, 추석맞이 소외 이웃 위문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추석을 맞아 훈훈한 정을 나누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2일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등 소외된 이웃과 밀접한 관련 기관을 위한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위문에는 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0여 개소를 방문하여 한뼉 한뼉 손을 잡으며 정을 나누었으며, 소년가정을 방문해서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진안장수대대, 119안전센터 등 현업기관을 방문하여 그간의 수고로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진안장수대대 방문시에는 마이희(진안 기관단체사회장 모임) 회원인 군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 군지부장도 함께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주고 학생 '심신타파' 진행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서정분)는 지난 10일 무주군CYS-Na(무주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여가문화지원 "심신타파(心身打破)"를 무주고등학교 학생 19명과 진행했다.

심신타파는 심(心)-청소년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신(身)-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의 발산, 정서적 안정, 적극성 배양해, 타파(打破)-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갈등, 자기비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자기보고식 위기스키닝을 통해 청소년 자신의 위기정도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가문화활동으로 영동에서 불링체학과 부남면 일대에서 래프팅 체험을 실시해 화합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발산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종합복지관, 성금 기탁

무주군은 12일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성금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전달된 것으로, 이영재 관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힘이 되고 싶어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며 "오늘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얻고 나눔 문화는 더욱더 확대돼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국비 261억원 확보

장수군이 잇따른 국가공모사업 확보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각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이 달까지 공모사업에 31건 444억원(국비 2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국비 101억원) ▲장수읍·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국비98억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단지조성(국비23억원), ▲사곡·원흥마을 단위 정비사업 단위 정비사업(국비7억원) 등으로 군은 2017년부터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득 군수는 "앞으로 공모사업 15건 578억원, 국가예산 25건 2,636억원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